

# 광주 교육현장 친일잔재 청산 '가속도'

### 금호중앙여고·중, 새 교가 발표...시교육청 오늘 보고회 교표 교체·단죄문 설치 등 을 한해 청산작업 진행 활발

광주 교육 현장에서 교가·교표 교체 등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와 금호중앙중학교가 친일잔재 청산 차원에서 교가를 변경한다. 새 교가는 26일 금호중앙중 학교관에서 발표한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인 기존 두 학교 교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은상 시인은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김동진 작곡가 겸 바이올린

연주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 '숫아라 산맥들이 자유의 이름으로'라는 가사라 시작하는 새 교가는 이용현(시인) 작사가와 김성훈 작곡가가 제작했다.

발표회는 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새 교가 제작 경과보고, 작사·작곡가 공로패 증정, 중앙중 학생들의 새 교가 합창과 오카리나 연주, 중앙여고 학생들의 신교가 합창 및 실내악 반주, 참석자 전원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11일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사학법인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은 교가 변경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지난 8월30일 가사를 결정하고 10월18일 곡을 선정했으며 10월29일 교가를 확정, 11월28일 최종 승인했다.

올 들어 광주 교육계에서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앞서 광주 문흥초와 우산초, 양산초, 월곡초, 중앙초, 화정초, 운암초, 제석초, 효덕초, 하남중이 친일 교표를, 광덕중·고, 대동고, 광주일고가 친일 교가를 청산했다.

임곡중과 광일고는 일본음계와 7.5조 음격, 가사를 교체했다. 또 송일고와 계

림초 등이 친일 교가 교체 작업을, 학운초·동운초·무등중 등이 교표를 교체 중이다.

평동초, 광주일고, 광주자연과학고에 위치한 일제총훈탑 양식 석물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석물에는 안내문(단죄문)을 설치했고 광덕고는 전국 최초로 일본 제품에 대한 '고등학생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은 지난 11월2-3일엔 전국 학생 대표와 해외 학생 대표가 모여 독립운동의 뜻과 선배들의 희생을 기렸다.

한편 시교육청은 26일 '위더스 광주'에서 '2019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최권범기자



전남대 캠퍼스 찾아온 원앙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25일 금일이 좋아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무리가 겨울나기를 위해 광주 도심속 북구 용봉동 전남대 캠퍼스 내 용지를 찾아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김예리기자

# 남구, 올해 공모사업 1천363억 확보 '성과'

### 최근 2년비 4배 ↑ ...도시재생·생활SOC 분야 호평

광주 남구가 올 한 해 동안 정부와 광주시 등에서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36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딛고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전 날 기준으로 남구청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통해 총 49건으로, 이를 통해 확보한 국 시비 등은 총 1천363억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공모 사업을 통해 조달한 312억원과 395억원에 비교하면 약 3.8배 가량의 재원을 더 확보한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재생과 생활SOC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남구청 개정 이래 단일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79억원이 투입되는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해 노대동 가족사랑 나눔센터와 효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위한 5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212억원, 장애인 전용 만다비 체육관 140억원, 자연부락인 덕남동 어진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 3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남구 재정 상태를 감안해 정부 공모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행장을 추진해 왔고, 그러한 노력이 커다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시교육청, 학생·시민기자단 300명 모집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현장 밀착 소식을 생산·전달하기 위해 학생·시민 기자단 300명을 모집한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2020년 1월30일 위촉식과 사전연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16일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특색 있는 교육 활동, 미담 사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취재 후 기사로 작성하고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실시간 정보를 공유·전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교육청 홍보기획팀(062-380-4452)으로 하면 된다.

/최권범기자

### 오늘의 날씨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60	목포	01:43	07:05
목포	30-60	여수	14:34	19:50
순천	30-60	여수	09:25	02:39
여수	60-60	여수	21:20	15:26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감기 조심하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50  
급하지 않으면 마루세요
- 운동 70  
실내운동 즐겨요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북동/0.5-1.5m 면바다 ☁ 북-북동/1.0-2.5m	오전	앞바다 ☁ 북-북동/0.5-1.5m 면바다 ☁ 북-북동/1.5-3.0m
오후	앞바다 ☁ 북서-북/1.0-3.0m 면바다 ☁ 북서-북/2.0-4.0m	오후	앞바다 ☁ 북서-북/0.5-2.0m 면바다 ☁ 북서-북/2.0-4.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2월 27/금	☁ (0/6)	☀ (-6/2)	☀ (-1/7)	☀ (-4/5)	☀ (-2/6)	☁ (5/7)
28/토	☀ (-1/9)	☀ (-3/5)	☀ (0/9)	☀ (-3/7)	☀ (-3/8)	☀ (5/11)
29/일	☁ (2/8)	☁ (1/5)	☁ (3/9)	☁ (0/6)	☁ (0/7)	☁ (8/15)

▶날씨안내 : 국민뉴스131

# 호남대, 교육과정 개편 'AI 특성화大' 선포

호남대학교가 교육과정을 AI(인공지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AI 특성화대학'을 선포했다.

호남대는 지난 3월부터 'AI중심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 협의회'를 운영해 ▲AI기초융합 교양과목 의무 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융합)전공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AI관련 교양과목은 빅데이터와 AI 소양영역의 이수학점을 3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리고, 각 전공마다 2개의 AI 교과목(6학점)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총 15학점의 AI과목 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과가 1개 이상의 연계·융합 전공을 개발해 배우도록 해 전공분야에 AI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은 물론, 문과와 이과, 학과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통섭의 교육과정을 통해 AI연계(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상철 총장은 "AI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국가대표 AI특성화 대학으로 만들 것"이라며 "AI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넥스트 캠퍼인'을 양성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 북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된다.

북구는 지난 10월30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13개 협업부서, 40여개 유관기관, 4개 주민 체험단 등 민·관·군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테러 등을 대비한 4가지 복합재난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해 주민체력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현장종합 훈련에 앞서 비상상황 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문제해결식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해 행동매뉴얼에 따른 상황전파, 비상기구 작동 등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정립하고 유관기관 간 조율체계를 확립했다.

/최환준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북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정받지는 시장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주요취급품목
- 생식품(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 ◆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 점포수 : 340곳

· 시장면적 : 10,563㎡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